전주시, 탄소중립 새로운 숙박문화 선도한다

전주한옥마을숙박체험업협회 ·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전주올땐그린스테이 협약식' 개최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 내 주요 숙박시설이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키로 했다.

전주시와 (사)전주한옥마을숙박체험업협회,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6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숙박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전주올땐그린스테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전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가장 큰 비중(49.8%)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큰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발굴하고, 관광객이 급증하는 전주한옥마을에서 숙박시설의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친환경 운영 실천을 통해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여행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전주시와 (사)전주한옥마을숙박체험업협회,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6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숙박시설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전주올땐그린스테이 협약식'을 개최했다.

'전주올땐그린스테이'는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증 기준 중 8개 이상을 실천하는 숙박시설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매년 현장 점검을 통해 인증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는 전주한옥마을 내 18개소 숙박시설이 자발적으로 참여키로 했으며, 지난해 시범사업에 동참했던 2개 숙박시설을 포함한 20곳으로 인증제도가 시작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행정적 지원과 공공 홍보를 담당하며, 전주시 위탁기관인 전주시에너지센터에서 건물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 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또한 (사)전주한옥마을숙박체험업협회는 숙박시설들의 자발적 참여와 확대에 힘쓰고,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인증 기준 설계 및 시민 인식 개선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관광도시 전주가 탄소중립을 고려한 새로운 숙박문화를 선도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숙박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에 공감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 전통 김장문화 체험 · 나눔

30일 전라감영의 날 행사 '담그랑께 나누랑께' 개최

전라감영에서 전주의 전통 김장문화를 체험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행사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30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전라감영 서편부지에서 '2025 전라감영의 날' 행사인 '담그랑께 나누랑께'를 개최한다.

전라감영은 조선시대 전라도를 대표하며 정치 · 문화 ·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해온 역사적 공간으로, 이번 행사는 전통 김장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문화 체험형 축제로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김장 체험 △떡 만들기 체험 △조선시대 직업 체험 등 총 5개 세부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특히 이날 전라감영에서는 과거 마을 공동체가 함께 겨울을 준비했던 풍경을 재현해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김치를 담그는 색다른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장 체험은 총 3회차에 걸쳐 500포기로 진행되며, 참가자가 직접 담근 김치 중 일정량은 가져가고 남은 김치는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을 통해 지역 내 독거노인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전주시 새마을부녀회가 김장 버무리기와 나눔 활동에 함께 참여해 전통의 가치에 따뜻한 온정을 더하게 된다.

김장 체험은 사전 예약이 마감됐으며, 일부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가족 단위 참여자를 위한 부대 프로그램으로 △직접 떡메를 내리쳐 인절미를 만들어보는 전통 방식의 떡 만들기 체험 △역사 캐릭터와 함께 즐기는 '사주풀이 · 활쏘기 · 판소리 · 동양화 캐리커처' 등 조선시대 직업 체험(전라관찰사의 탄생)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김치 전달식과 더불어 김장의 피로를 달래줄 경쾌한 기접놀이 등 전통공연이 펼쳐진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9개 중간지원조직 연대 · 협력 강화

중간지원조직 기능 연계 · 공동 거버넌스 구축 위한 협약 체결

전주시 행정과 주민 공동체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9개 중간지원조직이 협업과 연계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시는 26일 전주지역소통협력센터에서 전주시 9개 중간지원조직의 센터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공동체의 경제적 자립과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전주시 중간지원조직 기능 연계 및 공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공동체와 교육, 주거, 도시재생, 일자리 등 9개 분야 중간지원조직의 칸막이를 걷어내고, 복합적 수요를 가진 공동체와 시민들에게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참여한 9개 조직은 △전주지역소통협력센터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 △전주시가족센터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전주시에너지센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전주청소년센터 등이다.

참여기관들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취지 아래, 9개 기관이 보유한 인적 · 물적 자원을 결합해 지역 역량을 키워내는 '공동육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전주시 중간지원조직들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정량적 성과 달성에 주력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참여기관들은 공동 사업 발굴과 중앙부처 공모사업 공동 대응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강한 경제 전주'를 견인할 자생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외국인 유학생 위한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식' 가져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이사장 강신무, 이하 '법률지원본부')는 지난 25일 오후 전주시 중화산동 연가에서 '우리학교변호사 위촉식'을 갖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전북지역 변호사들과 법률지원본부 이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유학 생활을 위한 새로운 공익 법률 네트워크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김학수 전북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전주시와 전북변호사회가 법률지원본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캠퍼스 법률 주치의'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전주 지역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인 전주시가 중심이 되어 관내 대학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주시형 외국인유학생 정주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회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다.

전주시는 이 협의회를 기반으로, 대학 · 지자체 · 전문가가 함께 움직이는 지역 밀착형 유학생 정주 지원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연국 · 한정수 도의원, 최명철 전주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이종호 전북세무사회 회장, 나춘균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양광영 전북은행 외국인영업본부장 등 지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법률 · 의료 · 복지 · 금융이 연계된 통합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협력 의지를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 청년 소통행사 후원금, 고립 · 은둔 청년 위해 기부

전주지역 청년들이 소통 행사를 열고 모은 후원금을 고립 · 은둔 상태에 놓인 또래 청년들을 위해 기부했다.

전주시는 26일 시청 3층 회의실에서 '2025 전주시 청년소통 네트워크 데이 with 덕후전' 행사 운영 수익금 및 후원금을 고립 · 은둔 청년에게 후원하는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식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청년 문화인들의 선행을 격려했다.

시는 지난 8일 청년이음전주(현무1길 31-5번지) 일대에서 청년 등 시민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주시 청년소통 네트워크 데이 with 덕후전'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기관과 청년, 청년과 청년이 소통 및 교류를 통해 공감 · 유대를 형성하고, 청년 시민과 고립 · 은둔형 저활력 청년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진 이번 행사를 위해 청년 문화인 볼드와 블록, 문화예술해방군 등 총 40여 명의 청년과 문화인들이 대거 참여해 의미 있는 행사로 꾸며졌다.

행사 운영에 따른 수익금과 후원금 전액은 이날 (재)전주복지재단에 후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고립 · 은둔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데 사용키로 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새내기 도시농부 19명 양성 수료식 가져

전주시가 맞춤형 농업교육을 통해 새내기 도시농부 19명을 양성했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26일 '전주시 도시농업 기초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난 9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2개월여 동안 진행된 이번 '도시농업 기초과정'에는 생활권에서 텃밭을 가꾸고자 하는 시민 20여 명이 참여해 이론과 실습, 현장 체험이 어우러진 도시농업 교육을 받았다.

교육 과정은 총 10회 41시간(이론 23시간 · 실습 18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전주시 농업기술과 2층 교육장과 전주시 도시농업체험농장 '도란도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도시농업의 이해 △농업 ·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 △토양 · 작물 생육 관계 △가을작물 식재 계획 수립 △텃밭 조성 · 식재 실습 △추비 · 관수 · 제초 및 병해충 관리 △생활재료를 활용한 친환경 살충제 만들기 △도시농업 속 곤충사육의 이해 △화훼 관리와 삽목 △텃밭 수확물 요리 및 나눔 활동 등으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됐다.

그 결과 총 19명의 초보 도시농부가 교육과정을 이수해 수료증을 받았다.

/권희성 기자